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10.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英, 테러희생자 지원 기금 조성**
 - 10.13 英 내무장관은 자국내 4개 기업이 각 12만 5000파운드씩 총 50만파운드(약 7억4천만원)의 기금을 조성하여 테러희생자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
- **러시아, 체첸* 수도 그로즈니 테러 위협 경고**
 - 10.13 러시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기상황센터는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에서 불상 무장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, 이들이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테러 위협 경고
 - * 러 연방내 자치공화국으로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으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열망
- **헝가리, 자금세탁·테러자금정보 누락으로 KDB산업은행에 벌금 부과**
 - 10.12 헝가리국립은행(MNB)은 KDB산업은행 유럽법인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과 관련된 의심거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벌금 2,000만 포린트(약 7천6백만원)를 부과하고 개선 후 보고할 것을 요구

미주

- **美, 미시간주 주지사 납치 음모 적발**
 - 10.8 현지언론은 美 FBI가 지난 7일 미시간주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민 혐의로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6명을 체포했으며, 이들은 지난 8~9월 주지사 별장을 몰래 감시하고 11월 대선 직전에 계획 실행을 구상중이었으며 최근 폭발물과 전술장비도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보도
 - * NYT는 미시간주는 전통적으로 반정부 무장단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美 대통령, 아프간 주둔 미군 “올해 말까지 철수”

- 10.7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해 당초 탈레반과의 평화협정(20.2월)에서 밝힌 '21년 중반 撤軍 일정 보다 앞당겨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완전 철수시키겠다고 언급*

* 언론은 美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초까지 2,5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 공략을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보도

○ 잠무 카슈미르 보안군, 라쉬카르-에-타이바*(LeT) 최고 사령관 사살

- 10.12 잠무 카슈미르 보안군은 스리나가르 람바흐 지역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펼친 대테러작전에서 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의 최고 사령관 「사이프풀라」를 사살했다고 발표

* 인도領 잠무카슈미르의 파키스탄 귀속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 무장 단체 / 테러단체지정 : UN('05.5)·미국('01.12)·영국('01.3)·파키스탄('02.1)

중 동

○ 카타이브 헤즈볼라*, 이라크內 미군 철수 시 공격 중단 선언

- 10.11 '카타이브 헤즈볼라'는 ISIS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이라크 의회의 외국군 철수 결의안(20.1월)에 따라 철수하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

* 이라크內 親이란 시아파 무장세력 / 테러단체지정 : 미국('09.7)

아 프 리 카

○ 東아프리카 테러단체, 테러자금 마련을 위해 해상 활용

- 10.13 현지언론은 東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알샤바브 등 테러 단체들이 테러자금 마련을 위해 해상에서 납치·마약·무기 밀수 등을 자행하고 있으나, 대테러작전은 내륙에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

독일 함부르크 홍기 테러

- '16.10.16 22:00경 독일 함부르크 알스터호수 주변에서 불상자가 16세 소년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고 15세 소녀를 호수로 던지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
- 사건 직후 경찰은 범인 추적과 함께 수중다이버요원과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호수내 홍기 수색에 나섰으나 홍기 불발견
- 사건 발생 2주후 ISIS는 홍보매체 아마크통신을 통해 同 범행이 'solider of the caliphate'(칼리프*제의 군인)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며 사건 배후를 자처 (*칼리프 : 아랍어로 '대리인' 뜻으로 무함마드의 후계자)
- 수사당국은 범인이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범인 자신도 손을 다친 것으로 보고 함부르크내 병·의원 의사 11,5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치료 및 수술환자 여부 등을 탐문하는 한편
 - 키 180~190cm 및 어두운 머리색을 한 25세 전후의 남성, 범행 당시 청바지·갈색점퍼를 입은 인상착의와 몽타주를 가지고 범인을 추적
- 수사당국은 同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으나, 사건 배경 파악과 범인 검거에는 실패하여 미제사건으로 기록



< Five Eyes (다섯개의 눈) >

- (개요) 美·英·加·호주·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통신정보 공유 동맹체
- (역사) 1946년 안보정보 협력을 위한 英·美간 'UKUSA 협정'에서 시작, 캐나다('48)·호주('56)·뉴질랜드('56)가 합류하면서 5개국간 통신정보 수집·공유협력 동맹으로 강화되었으며 혈맹 이상의 관계를 유지
 - ※ 그림은 미국을 중심으로 좌측 5개국은 1급 동맹국, 우측은 2급 동맹국·옵저버, 하단은 적성국
- (특징) △'Five Eyes' 5개 동맹국은 앵글로색슨, 영어, 개신교라는 공통점이 있으며, △미국 외 4개국은 영국과 국왕을 같이하는 영국연방국 중에서도 특수관계 국가
- (동향) △'18.7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국시장 미개방 등 공동대응 추진, △'18.9월 애플·구글·페이스북·트위터 등 관련 업체에 국민보호·국가안보를 위한 회사관리 암호화 정보의 제공협조 요구

